

광주·전남 코로나 재확산... 전국 누적 확진 천만명 넘어서

광주 1만2187명·전남 1만5432명... 20세 미만 30.6% '스텔스 오미كرون' 확산에 위중증·사망자 수 줄지 않아

광주·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2만명을 넘어서는 등 다시 확산하는 모양새다. 전국적으로도 50만명에 육박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도 전체 국민의 20%인 1000만명을 넘어섰다.

2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광주 1만 2187명, 전남 1만 5432명 등 2만 7619명이 확진됐다. 지난 20일과 21일 1만명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2만명대를 훌쩍 넘겼다.

광주에서는 요양병원 4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해 13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연령대별로는 20세 미만인 3735명으로 30.6%를 차지했다. 전남에서도 20세 미만이 4598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29.79%에 달했다. 지역 내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도 총 529명의 집단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시·군별로는 순천 3035명, 여수 2473명, 목포 2423명, 나주 997명, 광양 996명, 무안 811명, 화순 562명 등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이날 스텔스 오미كرون 확산 여파로 49만881명이 신규 확진돼 누적 1042만 7247명을 기록했다.

이날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전남(35만3968명)보다 13만6913명 급증한 것으로, 지난 17일(62만 1205명) 확진자 수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일주일 전인 지난 16일의 40만694명보다는 9만187명 많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17일 최다치를 기록한 이후 주말·휴일을 거치면서 21일(20만9145명) 20만명대까지 내려왔으나, 다시 급격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해외에서는 인구 20%가 감염력을 가질 때 유행 감소세가 시작되는 경향도 나타났지만,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국내 유행 추세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12~22일 사이에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23일 이후부터는 점차 감소세가 될 것으로 전망해왔는데, 정부가 최정점 시기로 전망해온 23일 50만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확산세가 꺾일지 지켜 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지난 21일부터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8명으로 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고 전파력이 기존 변이보다 높은 '스텔스 오미كرون'도 확산하고 있어서 감소세로 전환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확산세가 이어지는 상황인 만큼 여전히 많은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나오고 있다. 전남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291명으로 직전일(384명)보다 93명 줄었으나 여전히 300명에 근접한 수준이다.

연령대별 사망자는 80세 이상이 17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70대 63명, 60대 38명, 50대 6명, 40대 4명 등이다. 30대 사망자도 1명 나왔다. 누적 사망자는 1만3432명, 누적 치명률은 0.13%다.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1084명으로 전날(1104명)보다 20명 줄었다. 위중증 환자는 지난 8일(1007명) 이후 16일째 네 자릿수로 나오고 있다. 정부는 확진자 규모가 정점에 이른 뒤 2~3주의 시차를 두고 위중증·사망자 수도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일일 확진자 수는 62만 1205명→40만6896명→38만1421명→33만4665명→20만9145명→35만3968명→49만881명이며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39만9천740명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23일 오후 광주 광산구 하남3지구 코로나 19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확진검사를 받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60세 이상·면역저하자도 신속항원 확진시 '재택치료 일반관리'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상담·모니터링·처방

25일부터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감염 고위험군'은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거쳐 확진 시엔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 같은 내용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의 일반관리군 전환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전 방안엔 따라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 등 동 네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서 양성 판정을 받아 확진자로 분류됐다면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이 된다. 일반관리군이면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상담과 증상 모니터링, 처방을 받게 된다.

60세 이상이라면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도 해당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 면역저하 확진자는 지금껏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돼 재택치료를 하면서 의료진에게 하루 2회씩 전화로 건강 모니터링을 받아왔으나, 일반관리군이 되면서 이런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받을 수는 없다. 만일 확진자가 이런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희망할 경우 보건소 기초조사 과정을 거쳐 집중관리군으로 전환될 수 있다.

박항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번 방안을 두고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되는 확진자 중에서 다니던 병원이 있거나 어떤 약을 지속 투약하는 경우 동네 병·의원을 선호하는 사례가 있어, 재택치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간 직통회선을 구축하고 운영 상황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본사인사

- ▲김민수 : 편집국 중부취재본부 나주주재 부국장
- ▲김창화 : 편집국 동부취재본부 여수주재 부장
- ▲김민준 : 편집국 서부취재본부 무안주재 부장
- ▲김대수 : 편집국 동부취재본부 광양주재 차장 (3월 24일자)

길게 늘어난 '눈보라 속 코로나 검사 행렬' 김진수 차장, 이달의 보도사진상 최우수상



광주일보 사진부 김진수 차장이 한국사진기자협회(회장 이호재)가 선정한 제230회 이달의 보도사진상 뉴스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수상작은 '눈보라 속 코로나 검사 행렬'로, 코로나19 감염증 일일 확진자 수가 9만 여명에 이르던 지난 2월 16일 광주시청 야외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PCR 검사장에서 눈발이 내리는 중에도 검사를 위해 줄을 길게 늘어난 시민들의 모습을 담았다.

한국사진기자협회는 뉴스, 스포츠, 피치&네이처, 스토리, 포토에이트 등 5개 부문에서 전국 신문, 통신사 등 소속회원 500여 명의 심사를 통해 지난 2월 취재 보도사진 작품 중 수상작을 선정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한국사진기자협회의 제230회 이달의 보도사진상 뉴스 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된 광주일보 김진수 차장의 '눈보라 속 코로나 검사 행렬'.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국민 절반 이상 반대

찬성 44.6%·반대 53.7%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전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헤럴드 의뢰로 지난 22일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44.6%는 찬성, 53.7%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가 반대 85.2%, 찬성 12.4%로 반대 의견이 특히 많았다. 대구·경북은 찬성 비율이 60.6%로 반대 39.4%보다 높았다. 서울도 찬성 비율이 58.4%로 반대 39.0%보다 높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에서 반대가 62.2%로 나타났다. 20대(59.9%)와 50대(56.1%)에서도 반대가 많았다. 70세 이상에서는 반대 비율은 38.3%로 찬성(61.7%) 비율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7.6%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연합뉴스

임아 3천평이상 삽니다
지분환영. 010-8902-7900

급매·교환
하실분. 010-3605-5000

상가매매(상무지구)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 중급반]

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 시세 -> 9억 급매가 -> 6억 (보 3천, 월 350만, 용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휴,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광주

- 북구 신안동(다세대빌라) ▶ 감정가 3억9천 -> 1억7천 (3/23)
- 광산구 소촌동(동자) ▶ 감정가 4억4천 -> 2억5천 (4/14)
- 광산구 덕림동(임야) ▶ 감정가 21억 -> 15억 (4/15)
- 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2억5천 -> 1억4천 (4/15)
- 동구 지산동(임야) ▶ 감정가 19억 -> 13억 (4/22)
- 광산구 하남동(주택) ▶ 감정가 7억8천 -> 5억5천 (4/22)
-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95억 -> 42억 (4/26)

전남

- 화순군 도곡면(임야) ▶ 감정가 7천 -> 7천(3/31)
- 담양군 창평면(주택) ▶ 감정가 2억5천 -> 2억5천 (4/6)
- 나주시 빛가람동(주차장) ▶ 감정가 17억 -> 12억 (4/11)
- 보성군 벌교읍(근린시설) ▶ 감정가 130억 -> 38억 (4/11)

시외

- 경기도 수원시(근린주택) ▶ 감정가 15억 -> 7억4천 (3/31)
- 경북 경주시(다가구원룸) ▶ 감정가 15억 -> 5억4천(4/5)

010-6670-9800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기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수금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조직변경공고

본 법인은 2022년 03월 22일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전원의 일치로 농은 영농조합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인 동호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 본 법인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4일
농은 영농조합법인
전라남도 영광군 군남면 옥창로2길85 대표이사 이은 열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공고
피상속인 양 김아(1964.03.21~) 2022년 1월 19일(4월) 광양시 부강면 구림리 44-1의 피상속인 김선영(1931.02.05) 상속포기공고
김은 위법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공고와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2.년(10)005호로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한 상속인 및 상속포기사건을 신청 2022년 3월 17일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사건을 원용함으로써 위법인의 재산 및 채권과 채무 등을 원상복합으로 하고 종래일부 2개월 이내에 고 유언에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가 바 라며 만익 기간내에 신고하여야 할 것에서 재외유언을 공고함.

2022년 3월 24일
한정승인: 김선영
재판장: 김진수, 광주 구서로 158번길 42, 303호(유신성, 대덕연)

산행안내
3월27일(일)
▲광주KJ산악회 3월27일(일) 충북 단양"재비봉"구담봉"육순봉"출렁다리&느림보강물길"잔도트레킹"스카이워크산행 *영주체육관05:00, 동아병원05:05,롯데백점05:10,광주역05:15,문예후문05:25,비엔주차장 05:30 *다음카페 광주KJ산악회 ☎ 010 7794 692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0년

光州日報
신문부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약구독 062)220-0550